

고려 후기 입사공예의 전개와 원과의 상호연관성

김세린*

- I. 머리말
- II. 고려 후기 입사공예의 전개와 재료수급
- III. 원의 금속공예 제작체제와 고려와의 관계
- IV. 고려와 원의 입사기법 유형과 상호작용
- V.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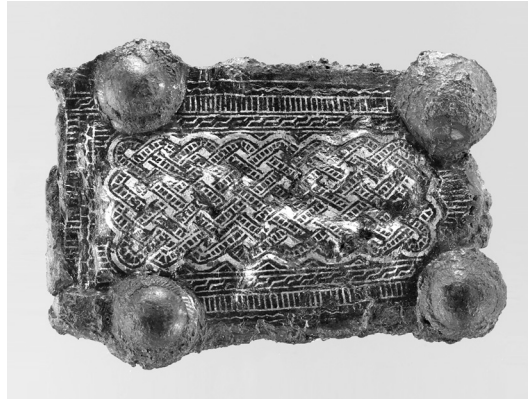
麗蒙戰爭이 마무리 되고 高麗와 元은 화친을 맺었다. 오랜 전쟁에 따라 피폐해진 고려 내부의 정치경제적 상황, 그리고 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협상이기에 화친 이후 고려는 피지배국과 다름 없는 위치에서 원과의 조약과 각종 명분을 근거로 인적, 물적 수탈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고려는 국가의 존립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공예문화를 비롯한 고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전승할 수 있었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원과 고려의 인적, 물적 교류는 확장 및 다각화되었고, 원과 고려의 상호 문물 유입도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은 고려는 물론 중앙유라시아와 서아시아,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지배했다. 그러나 원은 통치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전반적인 문화적

*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도 1 끼움입사, 〈靑銅銀入絲唐草鳳凰紋盒〉부분, 고려 12세기, 리움



도 2 유럽의 쪼음입사, 〈벨트버클〉, 6~7세기, 프랑크왕국,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기반이 취약함 역시 절감했다. 이에 원 世祖 연간(재위 1260~1294) 본격적으로 기존의 중원 문화와 그 외 지역들의 문물을 흡수해 융합하는 정책을 외교, 문화, 종교, 공예(산업) 등 다방면에서 펼쳐 나갔고, 중원 및 여러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함께 이를 흡수, 융합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꾸준히 실시해 취약점을 보완해나갔다. 그 결과 宋代까지 이어진 중원의 공예 전통은 물론 유라시아 및 서방의 다양한 기술문화와 의장이 원의 공예에 고루 적용되었다.

이러한 원의 제도 및 정책과 교류 양상은 고려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본 고의 연구주제인 입사공예에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주요 세부기법인 끼움입사와 쪼음입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선 끼움입사는 원대부터 중국의 입사 유물에서 중국에서 전승된 끼움입사와 함께 고려식 끼움입사의 중국 유입이 확인된다. 끼움입사는 기물의 표면에 음각을 하고 음각면에 장식금속을 끼워넣는 기법으로 입사를 사용하는 각 문화권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사용한 세부기법이다(도 1). 기법의 전통이 긴 만큼 문화권에 따라 시문 방법 및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고려 중기까지의 유물에서는 보이지 않던 쪼음입사가 14세기 유물에서 일부 확인된다. 쪼음입사는 기물의 면에 정으로 얇게 반복적으로 음각을 한 후 음각면에 실처럼 얇게 가공된 금속선을 쪼아 넣어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서아시아 및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도 2). 중국에서는 4~5세기 北魏 등 북방민족의 교역품에서 극소량 확인된다. 이후 12세기 말

¹ IV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끼움입사는 음각면에 음각면의 형태로 가공한 장식금속을 끼워 넣는 기법의 시문 근간은 동일하지만, 장식금속의 재료와 가공 형태, 세부시문법에 차이가 있어 장식효과가 약간 다르다.

~13세기 북방지역의 유물을 시작으로 특히 13세기 후반~14세기 원대 유물에서 중국에서 제작한 쫄음입사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이 시기 중국에서 본격적인 시문이 이뤄졌음이 확인된다. 더불어 쫄음입사를 먼저 사용했던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교류 내용 등을 기록한 여러 문헌자료들은 원대 중국에 쫄음입사가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이 유입되어 정착한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당시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려 역시 원과의 교류를 통해 쫄음입사가 유입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입사공예가 다방면에 걸친 고려와 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작용이 이뤄졌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13세기 후반~14세기 고려의 입사공예 및 이후 쫄음입사가 성행한 조선의 입사공예 및 기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고려 후기인 14세기 입사공예의 전개와 기법 교류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입사공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쫄음입사 유입 시기를 검토한 연구성과가 나왔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유입시기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다.² 아울러 도입시기의 근거가 되는 유물에 대한 분석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와 관련된 문헌과 명문, 고려시대 유물을 근거로 한 쫄음입사의 유입배경 분석 및 동시기 함께 사용되었던 끼움입사의 교류에 따른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고려와 원 입사기법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전모 역시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원 간섭기이자 고려 후기인 13세기 후반~14세기 고려 입사공예의 전개와 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 기법의 상호연관성을 제작과 직결된 금속공예의 제작체제, 원료 그리고 교류사에 주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정된 문헌 및 유물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인만큼 시론에 머물 수도 있지만 고려 및 조선으로 전승된 입사기법의 근간 및 기술문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² 김세린, 「고려시대 금속상감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에서는 당시 외교관계와 유사한 문양 소재 및 구조를 토대로 고려 후기 입사공예가 원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가능성만 제기했다. 이후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선정, 「조선시대 은입사기법의 현대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학위논문 (2013) 원의 유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원의 쫄음입사가 고려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박수지, 「쫄음입사의 기원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에서는 유럽과 중국, 한국의 쫄음입사 유물을 시기별로 정리해 쫄음입사가 명에서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II. 고려 후기 입사공예의 전개와 재료수급

1. 유물과 명문을 통해 본 입사공예의 전개와 인식

고려시대 입사유물은 끼움입사로 장식된 유물이 고려 전시대에 걸쳐 다수 확인되는 가운데 초기 형태의 쫘음입사 유물도 14세기 중, 후반으로 추정되는 유물을 중심으로 극소량 확인된다. 이는 고려 이전부터 전승된 입사의 세부기법인 끼움입사와 함께 쫘음입사가 고려 후기 기물 장식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입사기법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그 전조가 확인되어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 활발하게 사용된 공예의 장식기법으로, 오랜 전통과 기법의 근간 그리고 수요와 저변을 토대로 꾸준히 기술 및 세부기법이 확장되었다. 현재 입사기법은 금속공예의 장식기법으로 한정되어 논해지지만, 명문과 문헌, 유물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입사는 금속재료를 기물에 감입하여 장식하는 시문기술을 자체를 의미했다. 여기에서 장식 재료는 금속으로 한정되지만, 기물의 제작재료는 나무, 돌 등 한정되지 않았다.³

고려시대 입사공예의 근간은 현전하는 삼국시대 유물에서 확인된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주로 동, 철제 기물에서 나타나는데, 현전하는 이른 시기 동제 유물은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평



도 3 <金象嵌銅魁>, 고구려 4세기, 평안남도 중화군 출토,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안남도 중화군 출토 <金象嵌銅魁>(4세기), 철제유물은 전국 각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환두대도 및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 소장 백제 <七支刀>(4~5세기) 등이 있다(도 3). 통일신라에는 유물과 함께 『三國史記』本紀 聖德王 32년(733) 신라에서 당에 보낸 물품 가운데 '金銀鈿器物'과 『新唐書』東夷列傳에 기록된 동일 사실에 대한 내용을 통해 문헌기록에서 입사공예품의 용례가 확인된다.⁴

³ 김세린, 「조선후기 입사장(入絲匠)의 역할과 작업법주의 재해석」, 『무형유산』 3 (2017), pp. 262-265.

⁴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 聖德王 32년 12월, “冬十二月, 遣王姪志廉, 朝唐謝恩, 初, 帝賜王白鸚鵡雄雌各一隻及紫羅繡袍金銀鈿器物瑞紋錦五色羅縵共三百餘段, …”; 『新唐書』卷220 東夷列傳 新羅條, “玄宗開元中, 數入朝, 獻果下馬, 朝霞口, 魚牙口, 海豹皮, … 帝間賜興光瑞文錦, 五色羅, 紫繡紋袍, 金銀精器, 興光亦上異狗馬, 黃金, 美口



도 4 <함평궁주방명칭동은입사향완>, 고려 13세기, 높이 23.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5 <지정4년명 중흥사향완>, 고려 1334년, 높이 33.4cm, 불교중앙박물관

고려시대에는 고려 후기까지 향완, 정병, 경가, 장식편 등 다양한 기종의 동, 철제유물이 확인된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종은 향완으로 명문을 통해 사용자 또는 제작목적이 밝혀진 사례가 다수 있어 입사공예품의 용례 및 사용 유형을 보여준다. 명문을 통해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咸平宮主房銘青銅銀入絲香瓘>을 들 수 있다(도 4). <함평궁주방명칭동은입사향완> 원릉대 밑면에 있는 명문에는 熙宗(재위 1204~1211)의 왕비인 성평왕후 임씨가 1211년(희종 7년) 책봉된 궁호인 함평궁주라는 명칭과 처소를 뜻하는 ‘房’이 있다. 이를 통해 성평왕후가 함평궁주로 책봉된 이후 제작되어 처소에 비치하거나 사용했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⁵ 함평궁주라는 궁호는 성평왕후가 함평궁주로 봉해진 1211년 희종이 폐위된 이후 1247년 사망할 때까지 사용했다. 이후 함평궁이 계승되거나 사용된 사례는 보이지 않아 현재 13세기로만 추정하고 있는 <함평궁주방명칭동은입사향완>의 제작 연대를 1211~1247년 사이로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⁶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 소장 <至正四年 重興寺銘 香瓘>

諸物.”『신당서』에 나오는 인물인 흥평은 당 현종과 이름이 같아 개명한 성덕왕의 이름으로, 『삼국사기』와 『신당서』 본기 및 동이열전에는 동일한 조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金銀銅器物은 『高麗史』혜종조에서도 입사 검 등 입사공예품을 묶어 지칭한 용례로 확인되는 용어로 입사세공품으로 추정된다.

⁵ “咸平宮主房以造上華嚴經排青銅香瓘一副「道成」, <함평궁주방명칭동은입사향완> 명문.

⁶ 성평왕후의 함평궁주 책봉과 사망은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 기록되어 있다. 책봉은 『高麗史』世家 卷21, 熙宗 7년(1211) 4월, “夏四月 癸未 冊元妃任氏爲咸平宮主.”, 사망은 『高麗史』世家 卷23, 高宗 34년(1247) 8월, “八月 乙

에는 친원과 권력자 蔡河中(미상~1357)과 부인이,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소장 <至正十二年銘青銅金銀入絲香壇>에는 고려인 원 환관으로 원 순제의 황후였던 기씨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高龍普(미상~1362)와 그의 부인이⁷ 발원자로 명문에 기재되어 있어 제작을 주도한 주체의 신분과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도 5).⁸ 이 외에도 입사향완의 명문에는 발원층 혹은 제작주체의 직위 혹은 上院寺, 興王寺 등 문헌에 기록된 주요사찰 및 인물도 확인된다. 특히 앞선 두 향완의 사례와 같이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들이 봉헌주체로 등장한 사례는 고려 후기 입사공예품의 문양이나 기법에 있어 원과의 상호관계에 이들이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현전하는 명문을 통해 주목할 점은 다음 (표 1)과 같이 13세기부터 이전시기보다 장인의 명칭이 보다 분명해지고, 장식재의 형태와 감입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우선 장인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면 12세기까지의 명문에서는 舍銀, 納絲 등 은을 향완에 시문하는 행위를 명문에 기술하고, 시문을 한 장인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직책은 中郎將, 尙乘副內承旨 등 공예와 무관한 일반직을 역임한 私匠의 관직 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14세기 유물의 명문에서는 縷手, 入絲匠, 縷工 등 제작자의 장인명이 구체적으로 적힌 명문들이 확인된다.

더불어 명문에서는 장식재의 형태와 감입에 대해 인식이 점차 구체화 되는 양상도 함께 보인다. <대정 18년명 금산사향완>(1178,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에는 실을 넣었다는 納絲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장식재의 형태(絲)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⁹ 13세기부터는 入絲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12세기까지 은의 감입 행위에 중점을 뒀던 인식에서, 13세기부터는 실을 지칭하는 명칭인 縷(鏤; 滿縷, 萬縷, 滿鏤)와 絲 등 다양해진 장식재의 표

已 熙宗妃咸平宮主任氏薨。”라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사절요』도 동일하다. 이 두 사서를 비롯한 고려 관련 사서와 조선시대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서 이후 咸平宮, 咸平宮主라는 궁호 및 궁명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평 왕후만이 궁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⁷ 至正四年五月日敬造青銅縷銀香爐一座獻于三角山重興寺大殿佛前將比功德用祝皇帝萬歲國王千秋天下太平同願命議政承蔡河中午山郡夫人梁氏徹明勸善比丘悟如真悟戒瑚縷手中郎金卿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群生皆共成佛道

⁸ 至正十二年 壬辰閏三月日 龍藏禪師 無量壽殿大香壇 大功德主 榮祿大夫 資政院使高龍寶 永寧公主辛氏 大化主 慧林 戒休 景真 錄者性謙 縷工.

⁹ <대정 18년명 금산사향완>에 시문된 入銀이 현재까지 입사를 표현하는 용어로 해석했다. 하지만 명문의 맥락을 해석해보면 入銀 뒤에 八兩이 같이 적혀 있어, 입사 등 향완 제작에 은 8냥이 들어갔다는 뜻(入銀八兩)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같은 명문에 실 형태인 장식재를 넣었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인 納絲를 입사기법의 지칭 용어로 보는 것이 옳다.

〈표 1〉 입사공예품의 명문에 나타나는 기법 및 장인명칭

시기	유물명	편년	명문	기법/장인명
12세기	대정17년명 용흥사(표충사) 향완	1177	大定十七年丁酉六月八日法界生亡共增菩提之願以鑄成青銅含銀香垵一副重八斤印棟梁道人孝初通康柱等謹發至誠特造隨喜者射文/昌寧北面龍興寺	含銀
	대정18년명 금산사 향완	1178	大定十八年戊戌五月日造金山寺大殿彌勒前青銅香垵一座台具都重三十斤入銀八兩棟梁祇毗寺住持三重大師惠琚金山寺大師仁美京主人郎將金令候妻崔氏伊次加女納絲殿前尚乘內承旨同正康信鑄成高正	納絲
13-14세기	정우2년 자효사 향완	1214	貞祐二年丙子七月日慈孝寺住持比丘□趣□願堂威顯□□□□寺講堂排入絲青銅香垵壹入重陵斤拾兩造納□	入絲
	지정4년 중흥사명 향완	1344	至正四年五月日敬造青銅縷銀香爐一座獻于三角山重興寺大殿佛前將比功德用祝皇帝萬歲國王千秋天下太平同願命議政承蔡河中郡夫人梁氏徹明勸善比丘悟如真悟戒瑚縷手中郎金卿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群生皆共成佛道.	縷手
	지정12년명 향완(신계사)	1352	至正十二年壬辰閏三月日龍藏禪寺無量壽殿大香垵大功德主榮緣大夫資政院使高龍寶永寧公主辛氏大化主慧林戒休景真錄者性謙縷工	縷工
	지정28년명 향완(표훈사)	1368	國王千千秋王后壽無疆殫錫鑄香爐獻于諸佛前願共諸衆生同生極樂國判事金元永願入絲匠徐勉造至正二十八年戊申八月日誌	入絲匠

현을 통해 장식재의 가공 형태와 감입에 대한 인식의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¹⁰

이러한 인식의 흐름 및 명문의 변화는 銅匠 등 기물 제작을 포함한 재료 자체를 다루는 장인이 시문에 참여했던 것에서 세분화돼 입사를 담당하는 장인이 점차 전문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이후 입사장이 조선시대 『朝鮮經國典』(1394)를 거쳐 『經國大典』(1485)에 경공장으로 명문화되어 법전 편입까지 이어진다.¹¹ 동시대 중국에서는 여전히 銀嵌, 金

¹⁰ 입사공예에 縷(鑲)의 사용은 『高麗史』에서도 확인되어, 13세기 당시에 이미 통용된 입사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高麗史』世家 卷30, 忠烈王 19년, “乙巳 王及公主詣皇太子眞金妃子闕闕眞殿, 贈金鍾·金盃各一事, 白銀滿鑲鍍金臺盞一雙, 白銀滿鑲瓶一事, 銀鍾九事, 銀盃二十事, 虎·豹皮各九領, 水獺皮二十七領, 細芋布四十五匹, 黑鷹·鶴各一翻.”

¹¹ 고려시대 관영장인의 명칭과 소속관청이 기록된 『高麗史』食貨志에는 입사장 또는 입사장을 지칭하는 명칭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는 『朝鮮經國典』에 입사를 하는 장인이라는 용례로 入絲匠이 처음 등장하며,

嵌, 萬寶嵌, (金, 金銀)嵌匠 등 감입행위와 재료를 위주로 한 명칭 사용을 지속한 것으로 볼 때 이는 고려 내에서 전개되어 통용된 고유의 인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금속재 수급상황과 입사공예와의 관계

고려시대 입사공예품의 주요 기물 바탕재료를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 살펴보면 대다수가 동이고 철도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재료의 사용은 고려 말까지 지속된다. 고려의 입사공예품 중 동제 공예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질 좋은 동의 풍부한 산출에 있다. 무기 및 기물 제작, 화폐제조에 주로 사용된 동은 ‘高麗銅’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질이 우수했고, 중국 및 일본과의 주요 교역물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철도 마찬가지로 무기와 공예품 등 수요를 국내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충당 할 수 있었다. 반면 고려 중기까지 성행한 타출, 어자문, 도금 등 唐, 宋風 금은 공예품은 주재료의 국내 산출량이 적어 소비량의 대다수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했다.¹² 따라서 관련 재료의 수급은 대외정세와 직결되었고 이에 시전에서 판매하는 금, 은의 수량 및 품질까지 국가에서 관리했다. 하지만 공급량이 소비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은에 동이나 철을 섞어 재가공해 은으로 둔갑해 팔거나, 이를 공예품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등 금, 은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¹³

한편으로는 12세기 주요 원료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정강의 변(1126~27)을 비롯한 오랜 전쟁과 격변하는 정세는 금은기를 위주의 경향에서 동과 철제공예품 및 입사기법이 대두되는 요인이 되었다. 금, 은을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고려는 중국의 전시상황으로 인해 對中 공무역이 거의 원천봉쇄되자 사무역이나 밀무역으로 수급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도 고려 사회의 唐, 宋風 금은기 유행은 지속되었고, 상류층의 소비는 금, 은은 물론 도

관영장인으로 명문화 된 것은 『經國大典』이다. 또 『經國大典』과 동일한 내용 및 현황이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한성부편에도 실려있어, 관영공장으로서 입사장이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¹² 김세린, 「고려시대 금제와 공장제를 통해 본 금속상감기법의 양상」, 『미술사논단』 36 (2013), p. 172. 개국 초 후주를 시작으로 동은 중국과 공·사무역의 주요 품목이었다.

¹³ 이러한 판매 및 적발사례와 조서를 통한 금지령은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어 고려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발생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례로 『고려사』 世家 권12, 예종 즉위년 반포된 조서를 들 수 있다. “甲辰 詔曰 “朕聞, 民間買賣, 所用穀米及銀品甚惡. 故前代以來, 嚴法禁之, 而至今未見其懲戒者. 蓋奸猾之類, 不畏法禁, 惟利是求, 乃以沙土和米, 銅鐵交銀, 以眩惑愚民. 甚非天地神明之意, 民之貧困, 實由於此, 可懲之以法…”

금까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¹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자 금과 은의 물적 가치는 폭등했고, 법보 도난을 비롯한 사회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려의 사회상은 결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의 금은기 금제를 시행 요인이 되었다.¹⁵ 결국 명종 5년(1175) 금은기를 중심으로 한 금속재 사용에 대한 첫 금제가 내려졌다.¹⁶ 무신정권 치하에서 실시되어 실효성은 의문이지만, 이 조치가 공표된 12세기 후반~13세기 이후 이전에 비해 타출, 어자문 등으로 장식된 금은기 유물 비중이 감소되고 동 및 철로 제작된 유물 비중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¹⁷ 이미 동은 유동과 적동, 백동 등 체계화 된 사용이 이뤄지고 있었고, 제작 및 입사와 같은 장식기법의 기술력도 이미 갖춰진 상태였기에 금은기를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원 간섭기인 13세기 후반~14세기에는 원의 금속원료 수탈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금속재 전반의 부족을 초래했다. 우선 금과 은은 고려에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원이 고려에 직접 다루기치와 채굴인력 및 가공 관련 장인을 파견해 금, 은을 직접 광산에서 채굴해갔다.¹⁸ 동은 유동, 적동 또는 숙동이나 생동을 필요에 따라 선별해 많은 양을 가져갔는데, 이는 당시 원의 동 부족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¹⁹ 당시 고려는 전란으로 인해 금속 채굴 관련 인력들이 죽거나 공

¹⁴ 특히 거란 포로 및 귀화인의 유입은 당풍 금은기가 성행했던 요에서 활동한 장인이 고려에서 일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금은기 제작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실제 『高麗圖經』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다. 『宣和奉使高麗圖經』卷19 民庶 工技조에는 “高麗. 工技至巧. 其絕藝. 悉歸于公. 如幞頭所. 將作監. 乃其所也. 常服白紵袍阜巾. 唯執役趨事. 則官給紫袍.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益工. 第浮僞頗多. 不復前日純質耳.” 이와 같은 고려 전-중기 금속공예 및 소비에 대한 현상을 타출을 비롯한 금은기 유행과 함께 거란족의 유입에 따른 제작기술의 확장을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pp. 41-49.

¹⁵ 12세기 전반 중국의 송과 요는 고려와 유사한 사유로 금은기 금제를 실시한다. 임지윤, 『고려시대 어자문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pp. 60-61.

¹⁶ 명종은 1175년 4월 형벌, 관리들의 기강단속 등의 내용과 함께 금·은기 금제를 조서로 선포했다. 『高麗史』世家 卷19 明宗 5년(1175) “今者, 民俗偷薄, 而無禮義廉恥孝悌忠信之心, 至於父母, 生不能奉養, 死不能追遠. 如有孝親·忠主·兄友·弟恭者, 無問貴賤, 旌別勸誘. 又華侈踰度, 宴飲過極, 其悉除之, 若金銀物飾, 畫佛像法寶外, 亦不得施用.” 『高麗史節要』卷12 明宗 5년(1175). “民俗偷薄, 至於父母, 生不能奉養, 死不能追遠, 如有忠孝友恭者, 無問貴賤, 旌別勸誘, 又華侈踰度, 宴飲過極, 其悉除之, 若金銀物飾, 亦不得施用.”

¹⁷ 김세린, 앞의 논문(2013), p. 174.

¹⁸ 사례: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2년(1276) 7월, “丙午 元遣使來, 採金.”; 『高麗史』世家 卷 28, 忠烈王 3년 12월, “是歲, 前軍器注簿洪宗老, 欲貫其子仁伯罪, 說達魯花赤, 以謂多識產金處, 於是, 遣國學直講崔諶, 率宗老, 採金于洪州·稷山·旌善, 役民一萬一千四百四十六名, 七十日, 纔得七兩九分.” 이 외에도 고려의 금은 광물을 원이 직접 채굴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¹⁹ 『高麗史』世家 卷25 元宗 3년(1262). 원이 양질의 구리(유동)를 요구하는 기사가 처음 등장하며(“九月 庚午 蒙古遣

역을 이탈해 채굴체제가 거의 붕괴된 상태로, 동전을 주조할 동마저 부족할 정도였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기간 정복전쟁을 지속했던 원도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정복지에 각종 금속재를 과도하게 요구했고, 특히 동전 주조의 주요 재료였던 동을 고려를 비롯한 동 생산국에 집중적으로 수취했다.²⁰ 심지어 의례용 기물을 제외한 각종 동으로 제작한 기물을 요구하기도 했다.²¹ 뿐만 아니라 철의 수탈도 심각했다. 충렬왕 원년(1275) 병기 제작을 위해 민간에서 사용하는 철을 거둬 공물로 바치라 요구했고,²² 이에 따라 고려 조정에서는 민간의 철제 기물들을 거둬 이듬해 원으로 보냈다.²³ 당시 원은 무구나 마구, 장식품 등 철제공예품이 성행했는데, 이는 원의 쪼음 입사 도입 및 성행과도 관련이 있다.

여기에 고려는 금은기를 대체한 동기에 화려한 조형을 더하는 사치풍이 상류층은 물론 역 관층까지 확산되었다. 결국 채굴 관련 체제의 붕괴와 원으로 보내지는 공물에 사치풍이 더해지면서 고려사회는 극심한 금속재 부족에 시달렸다.²⁴ 결국 충렬왕 13년(1287)을 시작으로 수차례 걸친 동을 포함한 금속재의 사용 제한을 가했다.²⁵ 또 민간 채굴을 허용했던 동, 철광산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²⁶ 흥미롭게도 이런 일련의 상황은 고려 후기 사회 전반에 만연한 금속공예품의 소비 풍조를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고려 후기 동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입사공예의 중심이 본격적으로 철제공예까지 확대

按脫交徹兒，禮部侍郎劉憲，接伴使康和尚等來，索鷓子及好銅。我國以好銅，疑是赤銅，問於憲，答曰，“好銅者，鑄鉞也於是，令宰樞至六品，收鑄鉞有差。”，이후 지속적으로 동의 진상을 요구했다.

²⁰ 수에유니언 외, 『중국미술사』3 (다른생각, 2011), p. 495.

²¹ 원의 동제 기물 요구 역시 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거둬가는 경우도 있고, 요구 후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충렬왕 11년(1285)에도 의례기물을 제외한 동전과 기타 기물을 광범위하게 요구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는데 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高麗史』世家 卷30 忠烈王 11年, “己酉 元遣李熙載來，詔曰“除法物鐘·磬·銅鏡·古銅瓶·鼎·熟銅器物外，其餘應有銅錢·生銅器物，以聖旨到限百日，悉納所在官。”尋命停罷。”

²²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元年(1275) 11월, “元遣使來，作軍器，以起居郎金碑，偕往慶尚·全羅道，斂民箭羽·鏃鐵。”

²³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2年(1276) 3월, “遣中郎將張得精，如元獻鐵。”

²⁴ 원의 금속원료 수탈은 다음의 기사에서 그 예를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卷28, 世家28, 忠烈王 3(1277), “元中書省奉聖旨牒云 脫歡八都兒殺退百姓已安爾軍不須來 又牒云 洪州等處淘金功役權時停罷俟農隙依元牒施行.”;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3年(1277), 12月, “是歲 前軍器注簿洪宗老 欲貫其子仁伯罪說達魯花赤 以謂多識產金處 於是遣國學直講崔口率宗老採金于洪州稷山旌善 役民一萬一千四百四十六名 七十日纔得七兩九分。”

²⁵ 『高麗史節要』卷21 忠烈王 13(1287), “夏四月，禁市中合鑄銀銅。”를 시작으로 민간의 동 사용 제한, 철의 사용 차등화 등 공민원 연간까지 금속재료의 사용에 대한 금제를 수차례 실시했다.

²⁶ 기존에는 금과 은은 국가에서 관리했지만, 동과 철은 질이 높고 생산량이 많은 몇몇 광산을 제외하고는 대상이 광범위해 마을 등 촌락에서 광산이 발견되었을 시 국가에 보고하고, 생산은 마을이나 촌락에서 직접 한 뒤 국가에 진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선 태종대(재위 1400-1418년)에 채굴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柳承宙, 『조선시대 광업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93), pp. 9-21.

되고 고려 중기 명종의 금제 이후 입사기법이 재부각되었던 것처럼 조음입사의 유입 역시 이러한 사회상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한다.

Ⅲ. 원의 금속공예 제작체제와 고려와의 관계

1. 원대 금속공예 관련 관청과 관청 소재지에서의 교류

중국에서는 황실 의례에 사용되는 각종 금속물품에 입사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宋史』, 『元史』 輿服志 등 중국 正史의 기물 장식 관련 기사에서 여럿 확인된다. 특히 현전하는 원대 유물과 문헌에 등장하는 철제 공예품의 金入絲가 바탕 및 장식금속의 재료차이는 있지만 문양 및 기법에서 동시기 고려 입사공예와 유사한 면이 있어, 경향 및 기술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⁷ 하지만 시문의 세부형태 및 사용된 재료의 차이에 따른 기물의 전반적인 색 조합, 문양 구조 등에서는 양국 고유의 문화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다. 이러한 양국의 입사공예에서 나타나는 기법의 유사성과 조형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당대의 경향은 양국의 교류에서 이뤄진 것임을 암시한다. 당시 원과 고려의 금속을 비롯한 공예품 교류는 공, 사무역에서 모두 이뤄졌다. 특히 공무역의 중심이 되었던 官 주도의 제작품과 인적교류, 그리고 수도인 대도와 남송의 古都이자 남송지역의 공방 및 공예품의 제작을 관리한 중앙관청인 제로금옥인장총관부가 위치해있었던 항주에서의 교류는 공예기술과 조형 경향 등의 공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당시 원의 상황에 맞춰 재정비한 원의 공예 제작 및 수급 관련 관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쟁을 마치고 고려와 교류를 본격화 한 13세기 말 원은 송의 제도를 근간으로 넓은 영토에서 원료와 공예품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했다. 이런 까닭으로 송대까지 이어졌던 기존 중국의 수공업체제 및 제도와 원의 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본래 중국은 宋代까지 私匠과 私營工房을 중심으로 한 私匠制와²⁸ 관청과 官營作房을 중심으로 한 官匠制를 근

27 사례: 『元史』, 輿服志 卷1, 輿輅, 木輅. “... 金嵌鑽行龍十, 金嵌鑽螭頭三, 金嵌鑽龍頭二...”, 『格古要論』 卷6 鑽鐵條, “外面起花鍍金, 裏面嵌銀回回字者.” 등.

28 송 휘종은 항주와 소주에 造作局을 따로 설치했으며, 그 외 일부 무장 및 문신들이 개인 소유의 공예작방을 경영하기도 했다. 수에용니엔 외, 앞의 책 (2011), p. 413.

간으로 한 수공업체제를 宋代까지 이어왔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비했다.²⁹ 원은 송대까지 이어온 기존의 제도와 관청을 흡수하고 동시에 넓은 영토에서 산출되는 각종 원료와 공예품의 제작 관리, 수급 및 유통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복지의 자연 기후적, 문화적 특성에 따른 공물, 특산품에 따라 관청 및 공방의 규모를 변형, 확대하고 소재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영 공방 및 공장의 규모가 중앙 및 지역 관할 총관부와 工部, 將作院 등의 중앙관청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크게 확대됐다.³⁰

특히 원 세조 연간(1260~1294년)에는 국가 전반의 법령 및 제도 정비와 함께 공예 관련 제도의 정비도 이뤄졌다.³¹ 이 때 재정비되거나 새로 설치된 공예 관련 관청 가운데 금속공예 제작과 원료 및 공예품의 유통을 담당했던 관청은 대도에 설치한 諸色人匠總管府, 大都留守司, 上都金銀器盒局, 항주의 諸路金玉人匠總管府이다. 이 관청들의 소재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와 원의 주요 거점 교류지이기도 하다.

우선 항주의 제로금옥인장총관부는 본래 대도에 설치했던 金玉局이 전신이다. 원은 中統元年(1260) 공부 설치를 시작으로 금속류와 보옥류를 다루는 관청인 金玉局을 1261년에 설치했다. 至元3年(1366) 諸路金玉人匠總管府로 승격했고 至元 13年(1278) 항주로 이전해 南宋의 공예품 제반 관청 및 인력을 흡수했다.³² 제로금옥인장총관부의 이전은 항주 내 광범위한 송의 기관 및 작방의 운영과 기술력이 높았던 송의 증원문화 및 공예기술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또 인근의 민영 작방 및 장인까지 함께 운용해 필요에 따라 공적 물자를 유연하게 제작, 수급하려는 목적도 있다.³³

대도에는 諸色人匠總管府와 大都留守司, 그리고 將作院 소속된 관청으로 上道에서 제작

²⁹ 이와 관련해서는 『宋史』 및 『東京夢華錄』에서 묘사한 개봉의 작방과 관청 관련 내용들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확인된다.

³⁰ 『元史』 「百官志」에서는 공예 관련 관청 및 작방이 총 160곳에 이른다. 수에웅니엔 외, 앞의 책(2011), p. 413.

³¹ 中統 원년(1260) 中書省 설치를 시작으로 원의 제도 전반의 정비를 지속해 至元 8년(1271)에는 그간 법제로 사용한 금의 泰和律을 금지시키고, 원의 법제인 '大元新律'을 반포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至元 28년(1291) 성문법전인 『至元神格』을 출간했다. 공예품 관련 제작체제 및 제반사항 역시 이 흐름을 이어간다. 조원, 『元 法制的 특징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 고려의 元 法制 수용 논의를 중심으로』, 『13-14세기 몽골과 동아시아 교류사: 이화여대 사학과 BK21 플러스 사업팀, 이화사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17), pp. 5-6.

³² 『元史』 百官志 卷4, 諸路金玉人匠總管府, “行諸路金玉人匠總管府, 秩從三品, 至大間, 始置于杭州路.” 『元史』 百官志 卷4, 諸路金玉人匠總管府, “諸路金玉人匠總管府, 秩正三品, 掌造寶貝金玉冠帽, 繁腰束帶…, 金銀器皿, 并總諸司局事. 中統二年, 初立金玉局, 秩正五品. 至元三年, 改總管府.”

³³ 김세린, 『13-14세기 元代 工匠制를 통해 본 창금칠기의 전개와 성격』, 『미술사학연구』 286 (2015), p. 124.

되어 올라온 금은기를 관리한 上都金銀器盒局이 있었다.³⁴ 至元 10년(1275) 설치된 제색인장총관부는 원 百工의 技藝 및 중앙관청에서 제작하거나 지방에서 공물로 바친 직물을 제외한 기물의 제작과 수급을 담당한 관청으로 관청의 직무가 원의 공예품 제작 전반을 총괄하는 성격이 강했다.³⁵ 大都留守司는 至元19年(1284) 대도 황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의 제작 및 제반 원료수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이다. 대도유수사는 延祐7年(1321) 기존의 직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독립되어 있던 宋代 공예품 제작 관청인 小府監을 흡수했다.³⁶ 이 때 대도유수사에 금속 공예는 물론 목칠 등 송의 소부감에 속해있던 세부작방 및 장인, 직무가 함께 편입되었다.³⁷ 특

〈표 2〉 제색인장총관부와 제로금옥인장총관부의 금속공예 관련 관청과 역할

지역	총관부명	세부관청명	역할	분야
대도	諸色人匠總管府	出蠟局提舉司(종5품)	유료, 밀납, 금속재료 가공	금속, 목칠
		鑄寫等銅局(종7품)	동기 주물 제작	금속
		銀局(종7품)	금은 가공, 금은기 제작	금속
		鑄鐵局(종8품)	강철 가공 및 기물 제작	금속
	將作院	上都金銀器盒局(종6품)	상도에서 제작, 공납된 금은기 관리	금속
	大都留守司	銅局(종8품)	동 가공 및 기물 제작	금속
		銷金監(품계기록 없음)	금속재 용융 및 장식물 제작	금속
		器物局(종5품)	어용 및 의례, 종교용 공예품 제작 총괄(金寶器物 포함)	분야 포괄
		鐵局(품계기록 없음)	철의 가공 및 세공	금속
		減鐵局(품계기록 없음)	어용 및 궁정사용 철기 제작	금속
		盒鉢局(품계기록 없음)	어용 그릇 제작(금속제 포함)	분야 포괄
		成鞍局(품계기록 없음)	어용 마구 제작	금속 및 기타
		刀子局(품계기록 없음)	어용 금속 및 보석장식 刀子 제작	금속
	銀局(품계기록 없음)	어용금은기제작 및 금은 가공	금속	
	항주	諸路金玉人匠總管府	金銀器盒提舉司(종5품)	금속재 가공, 금속기 제작

34 제색인장총관부와 제로금옥인장총관부 이외의 관청(諸司局人匠總管府, 大道人匠總管府, 隨路諸民匠都總管府)은 주로 가죽, 직물(모, 면, 수, 염직물)제작 및 가공, 의복제작 등 섬유와 관련된 제작에 관여했음이 확인된다.

35 김세린, 앞의 논문(2015), p. 124. 『元史』百官志 卷1, 諸色人匠總管府. “諸色人匠總管府, 秩正三品, 掌百工之技藝. 至元十二年始置.”

36 『元史』百官志 卷6, 大都留守司條. “... 延祐七年, 罷小府監, 復以留守司兼監事.”

37 小木局, 油漆局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히 대도유수사의 금속공예 관청은 재료 가공 및 용융, 철제기물 및 마구제작 등 제작공정 및 제품에 따라 세부작방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는 송에서 계승된 공방을 골자로 원의 상황에 따라 정비, 보완한 것이다. 『元史』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대도유수사와 그 외 중앙관청, 총관부에 소속된 금속공예 관련 세부관청 및 작방과 수행했던 직무를 정리하면 다음(표 2)와 같다. (표 2)의 목록을 통해 대도는 재료가공과 제작공정을 기준으로 각 관청을 분리 설치했으며, 항주는 일원화했음이 확인된다. 또 의례 및 궁정에서 사용하는 칼 등 무기는 대도유수사에서, 실전용 무기는 路都總管府으로 같은 무구류라도 용도와 용처에 따라 제작 관리 주체를 분리해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³⁸

한편 대도와 항주는 공예품 제작은 물론 각종 문물 교류 및 교역의 중심지이자 고려와 원 교류의 거점도시였다. 또 두 지역에 위치한 중앙관청 모두 공예품의 도안 및 문양의 제작을 담당했던 畫局이 설치되어 있어, 대도의 중앙법식 및 지역에서 유행하거나 시대경향이 반영된 문양 및 의장, 공예품의 圖案 또는 圖說의 공유 및 유통에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³⁹ 이렇게 갖춰진 대도와 항주의 금속공예 제작 관련 체제 및 화국의 설치는 입사 등 공예문화의 대외교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궁궐 및 중앙관청이 집결되어 있던 대도에서는 원의 중앙문화는 물론 대외교류 및 정복전쟁을 통해 확장된 영토를 기반으로 한 동, 서방 문화의 유입 및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고려 역시 원에 왕자 및 관리가 입조하거나 이 외에 각종 루트로 인적 물적 교류가 여러 요인과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단적인 예로 원의 부마이자 원 세조의 외손자이기도 했던 忠宣王(재위: 1308~1313)과 같이 고려보다 원 대도에 머물던 시간이 길었던 왕과 친원과 귀족들은 고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원과의 관계를 통한 종교, 미술, 무역 등 대외교류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항주는 이미 송대까지 구축된 대규모 무역항과 대외무역의 기반을 토대로 원대에도 공, 사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이자 해로의 주요 거점지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 송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구축된 항주와 항주 인근 지역의 대규모 官, 私營 工房에서는 금속공예품과 함께 강서

³⁸ 노도총관부에는 대도유수사와 마찬가지로 금속재료 및 가공을 하는 관청이 별도로 있었으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대도유수사에서 함께 제작하기도 했다. 『元史』百官志 卷6, 路都總管府條.

³⁹ 대도에는 대도유수사 내에 항주에는 제로금옥인장총관부 내에 畫局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국은 국가 및 왕실의 기록화와 초상화의 제작과 공예품의 기물도안 및 의장, 문양도안의 제작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元史』百官志 卷6 大都留守司, 畫局. “掌諸殿宇藻繪之工”; 『元史』百官志 卷4, 諸路金玉人匠總管府, 畫局. “掌描造諸色樣製.”



도 6 <봉황문칠창금경합> 격자문 부분, 원 1315년 제작, 일본 동대사.



도 7 <동제합> 격자문 부분, 류큐 15-16세기 제작, 영국박물관.

성 길안의 나전, 창금칠기, 절강성의 용천요 청자 등 대외무역을 통해 활발하게 수출된 공예품들이 생산되었다. 항주의 이러한 생산 및 교역활동은 송~원대 항주에서 창금칠기를 수입했던 일본 및 류큐(琉球)에서 창금칠기의 격자문을 본 따 제작한 동제입사공예품이 도로 명에 유입될 정도로 의장 및 공예기술의 대외교류에 큰 영향을 미쳤다(도 6, 7). 고려 역시 마찬가지로 항주를 통한 다수의 사신 및 상인의 왕래 사례 그리고 항주와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용천요 청자, 금속공예품 등이 각종 루트로 고려에 유입된 사례가 유물 및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된다.⁴⁰ 대도 및 항주 등 거점지역에서의 이런 대외교류는 공예품의 문양, 기형, 기법 등 다양한 방면의 상호작용과 직결되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인정하고 각기 다른 문화권에 위치한 정복지가 지닌 고유의 문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한 원의 '各依本俗'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⁴¹ 이 정책

⁴⁰ 『高麗史』世家 卷14 예종 11년(1116) 6월 송 사신의 귀국기사를 시작으로 『高麗史』世家 卷44 공민왕 23년(1374) 2월 명에 항주의 해로가 아닌 육로 조공 허락을 요청하는 기사까지 다수의 기사에서 항주를 통한 왕래가 확인된다. 또 공, 사적 문물교류 뿐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정리한 중국사서 내 고려-발해유민 기사에는 발해유민이 항주를 통해 고려로 입국한 내용도 있어, 중국과 고려의 교류에서 항주는 중요한 거점지역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⁴¹ 원의 이러한 정책은 같은 계열의 민족 가운데 마지막까지 항거한 서하 등의 경우 일부 문화 및 기술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고 멸실하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고려를 비롯한 그 외 4한국에는 이 정책이 적용되어 각자의 전통 문화 및 기술을 인정하고, 광물 등 기간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외하고는 공물 역시 그 지역의 특산품을 위주로 받았다. 또, 집권자에 따라 믿는 종교가 달라지고, 문화 및 성직자들에 대한 대우도 차별화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문화가 다변화되고 각 문화권의 고유 문화가 인정되었다. 조원희, 『碑刻자료를 통해 본 元代 무슬림의 지위에 대한 일고찰』, 『13-14세기 몽골과 동아시아 교류사: 이화여대 사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이화사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2017), pp. 136-141.

의 표면적인 명분은 정복한 각 국이 지닌 문화와 전통을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목민족인 몽골족의 특성상 공예기술 및 문화가 부족했던 원의 기술을 宋정부의 작방 흡수 및 중앙아시아계, 이슬람계, 서방계, 고려 등의 기술과 공물을 통해 메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원의 정책은 고려의 공물 수취 및 무역, 대외교류에도 적용되었다.⁴² 따라서 입사공예를 포함한 고려와 원 공예의 상호작용은 통상적인 대외교류와 함께 원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2. 인적, 물적 교류에 따른 영향관계

13~14세기 고려와 원의 입사공예품은 공통적으로 동과 철을 기물의 재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장식금속으로 금과 은을 사용했다. 또 세부 시문기법과 표현된 문양에서 유사성이 일부 확인된다. 이는 당시의 정세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방의 운영 및 제반제도와 대외교류, 재료 및 원 조정에서 직접 관리했던 공예품 공납, 제작 관련 장인 교류 등 다방면의 인적, 물적 교류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원은 고려에서 거둬드린 공납품을 ‘高麗提舉司’는 별도의 중앙관청을 세워 관리했다.⁴³ 고려제거사는 정3품 장작원 소속 관청으로 西夏總管府 및 大理提舉司 등 정복국 및 정복지의 공납물을 관리했던 다른 장작원 소속 지역 관련 관청들이 서하국총관부, 대리국제거사와 같은 별칭을 지녔던 것과 같이 고려제거사도 고려국제거사로 불리기도 하였다.⁴⁴ 이들의 관리를 담당한 상위 관청인 장작원은 금속 및 옥과 대모, 상아와 같은 보옥류로 제작되는 관과 기물 그리고 직조와 자수 생산 등 공예품 생산과 관련 공물 관리를 총괄한 관청으로 至元30年(1293) 설치되었다.⁴⁵ 장작원은 송대 기물제작과 건축을 담당했던 將作監⁴⁶을 흡수한 관청으로, Ⅲ-1절에서 언급한 항주의 제로금옥인장총관부 역시 훗날 장작원 소속 관청으로 편입시켜 장작원에서 관리

⁴² 수에유니엔 외, 앞의 책(2011), p. 424.

⁴³ 『元史』百官志 卷4, 高麗提舉司條.

⁴⁴ 『元史』百官志에는 고려제거사라고 나오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종종 확인되는 본기 등에는 고려국제거사로 별칭이 등장하기도 한다.

⁴⁵ 『元史』百官志 卷4, 將作院. “將作院, 秩正三品. 掌成造金玉珠翠犀象寶貝冠佩器皿, 織造刺繡段匹紗羅, 異樣白色造作. 至元三十年始置.”

⁴⁶ 『宋史』職官志 卷5, 將作監. “凡木土工匠之政, 京都繕修隸三司修造案. 本監但掌祠祀供省牲牌, 鎮石, 炷香, 盥手, 焚版幣之事. …凡土木板築造作之政令總焉.”

하게 했다. 장작원에는 다양한 공예품 관련 작방 및 총관부가 속해 있었는데, 上都, 大都와 대도 교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관리하는 上都金銀器盒局, 大都等路民匠總管府와 지방소재 국영공방을 관리하는 隨路諸民匠都總管府도 있었다.⁴⁷ 다른 지역을 관리하던 관청보다 기록이 많지 않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지역의 관리를 담당했던 관청들에 대한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면 고려제거사 역시 고려 공납품 관리 및 고려에 요구할 물목 및 물품의 수량을 정하고 고려에 하가해있는 공주가 원에 요구한 물품들을 보내는 등 고려와 관련된 공예품을 비롯한 물품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또 고려에서 거둬들인 공예품 및 동, 철과 같은 원료의 수급량과 출납을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제작공방에 지급하고 제작물품을 다시 수납하는 등의 역할을 함께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인적, 물적 유입은 비단 원 뿐 아니라 고려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외교관계 및 공사무역을 통한 공예품의 유입은⁴⁹ 물론 원에서 고려에 직접 보낸 물품과 원과 고려가 필요한 물목을 상호 교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원의 요구에 의해 공물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려는 물목을 원에 바치고 고려에 필요한 물목을 요청하기도 했다.⁵⁰ 이는 외교관계 및 왕실간의 혼인에 따른 영향과 일본 정벌에 고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참여하게 되는 등 원과의 관계를 둘러싼 여러 복합적인 정세와 관련된 영향이 작용했다.⁵¹

원은 고려 뿐 아니라 네스토리우스계 옹구트 투르크 족 등 여러 정복지 왕실과의 婚脈 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강경 및 유화책으로 통치 및 관계를 지속했다. 그리고 공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국교국 및 다양한 형태의 관계가 형성된 여러 왕실에 많은 물품들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칭기즈칸 때 정복한 후 혼인관계를 맺은 옹구트 투르크족의 경우 옹구트 투르크족의 국교인

47 『元史』百官志 卷1, 隨路諸民匠都總管府. 수로제민장도총관부는 원 영종 지치3년(1232) 공부로 편입되었다. “掌仁宗嬪邸諸色人匠. 延祐六年, 撥隸崇祥院. 後又將作院. 至治三年, 歸隸工部.”

48 실제 원이 고려에 요구하는 공납품 뿐 아니라 원의 공주가 고려에 파견된 관리나 조정을 통해 원에 물품이나 인력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원 세조의 딸인 제국대장공주는 이러한 경우가 다른 공주들에 비해 잦았다. 사례: 『高麗史節要』卷19, 忠烈王 2년(1276), “公主將修宮室, 請工匠于元.”

49 사례: 『高麗史』世家 卷38, 공민왕 원년 8월, “戊午 元遣直省舍人普思泥, 賜王金帶, 及鈔二千錠.” 원종 말기부터 공민왕 초기까지 원에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확인된다.

50 사례: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2년(1276), “癸丑 遣中禁指諭金富允如元, 進黃漆, 且請明年入朝鋪馬及草料.”

51 원은 고려에 사신과 함께 匠人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는 무기, 실용기 등 공예품 제작과 직결되는 장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례: 『高麗史』世家 卷28, 忠烈王 원년(1275), “戊子 元遣使, 與劍工古內來, 古內在元, 言‘高麗有路可徑至日本’故遣之.” 劍工은 검의 제작 및 장식에도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장인이다. 물론 실전에 사용하는 전시무기를 위주로 제작에 참여했지만 검의 사용자의 위계에 따른 장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검은 고려 이전부터 중국과 한국 모두 刀子, 檢身 등의 입사장식이 성행했기 때문에 입사공예와의 관계도 배제할 수 없다.

네스토리우스교의 원 내 포교를 금지하지 않고 때에 따라 지원해 주기도 했다.⁵² 또 이민족 장인을 제작에 투입 및 중용하거나 물품의 제작의 성격, 목적에 따라 고려를 비롯한 정복국에서 관련 장인을 징발하는 경우가 잦았다.⁵³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 세조시대에 총애받은 네팔인 조소가 阿尼哥(1245~1306)가 있다. 그는 고려제거사가 속해있던 將作院의 건축 및 彫像 관련 국가적 공역에서 여러 중요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조소와 함께 금속공예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여 여러 공역을 수행했는데, 그를 비롯한 중국 본토 이외에서 유입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이민족 장인들은 조소입사를 비롯한 다양한 서역 및 서방의 공예기술이 중원에 유입되는데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이와 같이 다각도로 진행된 원의 대외교류와 복합적인 문화 형성은 경덕진 청화백자 등 중국의 공예기술이 대외적으로 확산되고, 다른 문화권 및 국가의 각종 공예 기술 및 조소입사를 포함한 장식기법이 중국 내에 유입되는 등의 폭넓은 공예 기술 및 문화 교류를 동반했다. 이는 고려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IV장에서 검토하겠지만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인 14~15세기 유물에서는 고려의 전통 입사기법인 끼움입사는 물론 조소입사의 초기적 형태가 같이 확인된다. 이와 반대로 동시기 원에서는 기존에 전승되던 중국식 끼움입사가 사용되면서 동시에 서방에서 유입된 조소입사가 본격적으로 공예품에 적용된다. 초기적 형태의 조소입사가 확인되는 고려에 비해 시기가 빠르고 시문 또한 정교해 기법의 유입 및 적용이 고려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함께 동제 공예품을 중심으로 기존에 사용되던 중국식 끼움입사와 함께 고려식 끼움입사가 원에 유입되어 병용한 모습이 확인된다.⁵⁵

더불어 이러한 기법 및 기술 교류 배경에는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전개된 동, 철제 기물의 제작 활성화도 영향을 미쳤다. II-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는 12세기 이후 기존의 기술, 기법적 전통을 토대로 여러 사회문화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唐風 金銀器의 유행에 밀려 위축되어 있던 입사공예가 다시금 활성화 되어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원 역시 당시의 재료수급상황과 기마민족이라는 특수한 민족성과 문화 그리고 동, 서방에

⁵² 르네크루쎬, 『유라시아 유목제국사』(사계절, 1998), pp. 426-438.

⁵³ 고려에도 분야를 막론하고 장인 징발을 자주 요구했는데, 전쟁 직후 장인의 목록을 작성한 工匠案의 재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죽은 이들도 부지기수여서 징발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징집해가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高麗史』世家 卷 23, 高宗19년(1232). “又稱, 諸般工匠遺送事, 我國工匠, 自昔欠少, 又因饑饉疾疫, 亦多物故, 加以貴國兵馬經由, 大小城堡, 懼害被驅者不少, 自此耗散, 而莫有地著專業者, 故節次不得押遣應命.”

⁵⁴ 르네크루쎬, 앞의 책(1998), p. 440.

⁵⁵ 반면 동시기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보면 고려의 끼움입사는 전통적 기법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 다양한 동, 철공예문화가 유입, 발전했다. 하지만 끼움입사가 주로 사용된 동제 공예품보다는 끼움 및 조임입사의 동시 사용이 용이하고 전시무기에도 다양한 장식을 적용할 수 있는 철제 공예품이 성행했다. 원은 무기 및 일상기물은 물론 의례용 수레나 무구, 마구 등 특수한 용도를 지닌 기물에까지 동과 철을 활발하게 사용했으며, (표 2)와 같이 대도류수사에는 철의 용융 및 가공, 기물제작, 세공, 어용 철기 제작에 대한 각각의 관청을 두어 관리할 정도로 성행했다. 이는 금은기 관련 관청이 위주였던 이전 왕조와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문헌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철 및 동제 공예품에 입사장식을 한 사례도 있어 주목된다.⁵⁶ 더불어 명 초 간행된 『格古要論』(1388) 빈철조에는 원대 뛰어난 제작기술로 만든 강철검의 표면 回回文을 은입사(銀嵌)했다는 기록도 있다.⁵⁷

또 철제 공예품이 유행함에 따라 철의 사용 역시 이전에 비해 세밀하게 나누었다. 기본적으로 철의 특성 및 강도에 따라 일반 철물(鐵)과 강철(鑛)로 나누어 사용했고, 이 기준은 무기 및 일반기물의 제작에서 사용 목적과 기물의 특성에 맞춰 적용되었다. 이에 고려를 비롯한 정복국에 공물을 요구할 때도 熟鐵과 生鐵을 따로 요구했고, 상황에 따라 수량 역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철의 사용과 철에 대한 분류 및 인식은 명에도 계승되었다. 『格古要論』에서는 원대 철 및 철제공예품에 대해 논할 때 ‘鑛鐵⁵⁸과 錠鐵⁵⁹로 나누어 논하는데, 이를 통해 14세기 이후 원대 정립된 철의 구분과 사용 형태가 이미 일반화 되어 명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⁰

IV. 고려와 원의 입사기법 유형과 상호작용

1. 세부 기법의 상호작용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13~14세기 고려와 원의 문물 교류는 활발했다. 공, 사무역을 통해 오가는 물품은 물론 외교관계 속에서 예물로 오고 가는 물품도 상당수였다. 또 원이 필요에 따

⁵⁶ 김세린, 앞의 논문(2015), pp. 128-129.

⁵⁷ 『格古要論』卷6 鑛鐵條, “制作极巧, 外面起花鍍金, 里面嵌銀回回字者.”

⁵⁸ 『格古要論』卷6 鑛鐵條.

⁵⁹ 『格古要論』卷6 錠鐵條.

⁶⁰ 김세린, 앞의 논문(2015), pp. 128-129. 『元史』百官志에서는 철을 다루는 장인 역시 鐵匠, 鑛鐵匠, 水鐵匠 등 세분화 되어 있다.

라 요구한 청자나 동, 철제 금속기물을 공납물로 보내고, 원에서 金甕, 銀札思麻, 鐘 등 다양한 기물이 고려에 유입되었다. 이 시기 이처럼 다양한 기종과 재료로 제작된 공예품 및 장인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⁶¹ 이러한 교류의 활성화는 고려 당대의 기록은 물론 아래의 예시처럼 훗날 편찬된 조선시대 문헌에 사실에 대한 기록 및 분석이 함께 이뤄질 정도였다.

“(전략) 갑신년에 개성 사람 하나가 古塚을 파 들어가다가 왕릉에서 玉帶를 발굴하고 또 雲鶴이 그려진 자기 반상기 한 벌을 발굴하였는데 (중략) 그 때는 元나라 匠人들이 왕래했기 때문에 그 만들새가 여느 것과는 달랐다.(후략)”⁶²

고려~조선까지 이어진 이러한 기록들은 교류 및 교류와 연관이 있는 여러 물품 및 관련 기록과 물목에 대한 일반화된 인식 형성이 이미 이뤄졌고, 이를 통한 분석이 이뤄질 정도로 원과 고려의 활발한 문물 교류와 이와 관련 내용이 폭넓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예품을 둘러싼 이러한 물적, 인적 교류의 단서들은 입사는 물론 도자, 목칠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기법 및 문양 교류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교류 양상과 입사공예까지 미친 영향은 Ⅲ-2장에서 언급한 원의 정복국 문화에 대한 수용 및 교류 기조가 반영되면서, 기법의 상호작용까지 파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과의 입사기법 교류는 단순히 일방적 수용이 아니었다. 유물을 통해 당대 사용된 양국의 입사기법을 살펴보면 현재 입사공예의 주요 세부기법인 끼움입사와 조음입사가 모두 해당되는데, 당시 사회 문화적 분위기에 발맞춰 상호작용을 통한 기법의 교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당대의 상황에 따라 전개된 입사공예의 기법 및 조형적 확장은 비단 고려 후기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다. 이전부터 이어온 기법의 기술,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다각도로 전개된 對外교류는 금속공예는 물



도 8 끼움입사 시문(최응천, 『한눈에 보는 입사』, p.83)

⁶¹ 장남원, 「쿠빌라이시대 고려, 원 도자수용의 변화」, 『미술사와 시각문화』 8 (2009), pp. 200-202.

⁶² 『林下筆記』 冊7, 卷35, 薜荔新志. 장남원, 앞의 논문(2009), p. 202. 인용문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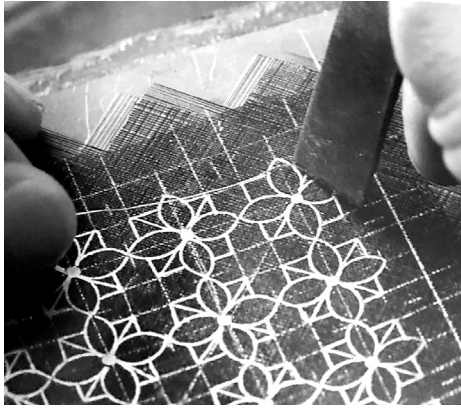
〈표 3〉 13세기 후반~15세기 초 한국과 중국의 끼움입사

고려		원	
		중국식	고려식
			
〈청동은입사포류수금문정병〉 세부, 고려 14세기, 높이 7.6cm 국립중앙박물관	〈동계용봉문은입사정병〉 세부, 고려 13세기, 전체높이 40.9cm, 통도사성보박물관	〈화병〉 세부, 남송~원(13세기), 항주제작, 높이 14cm,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화로〉세부, 원-명초(14-15세기 초) 높이 13.2cm, 영국박물관

론 고려와 중국의 목칠(螺鈿, 餞金) 및 도자(象嵌)공예 등 타 분야와의 유기적인 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및 조형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끼움입사와 함께 이 시기 원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쪼음입사의 초기적 형태가 입사공예의 주요 세부기법으로 확인된다. 두 세부기법은 기물의 바탕면에 문양을 음각하고 음각한 홈에 장식금속을 감입하는 기법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그리고 기물의 바탕면에 내는 음각의 형태와 장식금속의 감입 방식에 차이가 있다.

끼움입사는 고려 이전부터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이어온 입사공예의 세부기법으로 기물면에 문양형태를 그대로 음각한 후 장식금속을 박아넣어 기물을 장식한다(도 8).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은을 주로 사용해 문양의 형태와 동일하게 판 형태로 장식금속을 가공한 후 음각홈에 끼워 넣는 고려와 달리 중국은 주로 금을 사용해 박 형태로 얇게 장식금속을 가공한 뒤 문양의 형태로 장식금속을 절삭하고 이를 음각홈에 박거나 거의 입히는 방식으로 넣는다. 이처럼 양국에서 각각 전승된 끼움입사기법은 기법의 세부 시문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기물과 입사된 문양면의 높이가 동일하고 색채나 질감은 다르지만 장식면과 기물면이 같은 면처럼 보이는 입사기법의 장식 효과는 동일하지만 장식금속의 형태 및 재료의 가공 차이로 인한 시문효과와의 차이는 분명하다(표 3). 원과 고려의 교류가 활발했던 13~14세기 양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끼움입사의 전통적 시문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기에 고려식 끼움입사가 중국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원~명 초 유물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동과 은을 중심으로 최대한 평면화하여 입사와 기물이 동일한 면처럼 효과를 드러내는 고려식 끼움입사가 원 및 명 초 동계



도 9 쫘음입사 시문(최웅천, 『한눈에 보는 입사』, p.95)



도 10 <철제투구>, 원 1350년, 높이 19.1cm,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입사유물(14~15세기)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입사의 근간은 동일하지만 씩우거나 끼워진 효과가 두드러지는 중국의 전통적 입사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기법이 14세기 유물부터 나타나 고려와의 관계를 통한 기법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쫘음입사는 문양이 위치할 자리에 격자로 음각 홈을 수없이 낸 다음 음각 홈에 얇게 가공된 장식금속을 쫘아 넣어 장식한다(도 9). 쫘음입사는 끼움입사와 반대로 중국에서 고려로 동시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는 13세기 말~14세기, 한국에서는 고려말~조선초(14세기~15세기 초)에 초기적 형태가 확인된다. 쫘음입사의 중국 유입에 대해 중국에서는 4세기 북위시대에 몽골족과 쫘음입사가 이미 행해지고 있던 서방간의 교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⁶³ 실제로 서아시아 및 유럽에서는 6~8세기 유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된다.⁶⁴ 하지만 중국의 쫘음입사 편년 유물 중 가장 빠른 사례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소장 <철제투구>(1350)이며,⁶⁵ 14세기 원대 유물을 시작으로 이후에도 지속되어 원이 고려보다 약간 이른 시기 서방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도 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 원은 철을 위주로 한 공예품이 유행했고, 고려는 동을 위주로 사용하면서도 원료 수급상황 및 당대의 경향에 기인해 철제유물도 증가했는데, 이런 철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쫘음입사 유입은 당시 사

⁶³ 華梅要彬, 『中國工藝美術史』(天津人民出版社, 2005), p. 160.

⁶⁴ 특히 프랑크왕국(481~843)의 6세기 이후 동제도금, 철제 유물에서는 왕실 및 무사의 각종 장신구와 騎鉞관련 유물, 기명에서 활발한 사용이 확인되어, 이 시기 이미 유럽 상류층의 기물 장식에 확산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⁶⁵ 최웅천, 『한눈으로 보는 입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7), p. 30.

〈표 4〉 13세기 후반~15세기 초 한국과 중국의 쪼음입사

고려		원	
			
〈화문철검〉, 고려 14세기, 숭실대학교 박물관.	〈장식편〉, 러말선초(14-15세기), 양주 회암사지출토품	〈도자〉, 원 13-14세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어깨보호구〉, 원(또는 북원) 13-15세기,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용된 기물의 바탕재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요인에 기인한 당시 양국의 금속 수급 상황상 철이 동보다 무구, 마구 등 실질적인 활용의 폭이 넓었고, 쪼음입사를 철을 중심으로 활용된 이유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면을 중첩되게 흠을 쳐내 입사면을 만들어야 하는 쪼음입사의 특성상 강도가 비교적 강해 수많은 정질에도 견뎌낼 수 있는 철이 동보다는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4).

다만 고려 유입 시점이 문제인데, 현재 이와 관련한 논문에서는 대부분 고려 말 또는 조선 초로 보고 있다. 두 견해 모두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고, 원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동일하다. 그러나 러말선초 쪼음입사 유물이 극소량인 관계로 14세기와 15세기 말~16세기로 유입시기에 대한 견해가 나뉜다.⁶⁶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극소량이지만 원, 고려의 유물을 통해 볼 때 고려 유입은 14세기 고려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원대 대도에는 동, 서방 장인과 함께 분야는 알 수 없지만 고려 장인의 징발도 이뤄져 여러 문화권, 다

⁶⁶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30에서는 원 및 유럽의 유물을 통해 고려 말 쪼음입사의 유입 가능성을 제기해 두 논문에서는 14세기 원에 의한 유입을 주장했다. 박수지, 「쪼음입사의 기원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p. 75에서는 러말선초 쪼음입사 유물이 극소량이라는 이유를 들어 15-16세기 명에 의한 쪼음입사 유입을 주장했다. 필자는 필자의 졸고「고려시대 금속상감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조선시대 입사장의 역할과 작업범주」, 『무형유산』 3 (2017)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물을 통해 유입의 선후를 보면 서방 및 서아시아를 통해 중국 원에 13세기 초 쪼음입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려에는 13세기 말-14세기 원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15세기 명, 조선에 이르러서는 각국의 문화와 기술적 기반, 외교상황(일본 및 서역, 서아시아와의 교류)에 따라 고유의 문화가 반영된 쪼음입사가 구축되어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한 분야의 장인의 유입이 이뤄졌다. 또 Ⅲ-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려에도 劍匠 등 금속공예와 직결된 원의 장인 유입이 이뤄졌다. 따라서 장인 및 각종 문물의 유입과 교류는 원과 고려의 조음입사 유입 및 기술의 정착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고려 후기 원과 고려의 제작 환경 및 인적, 물적교류는 당대 유행 경향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원과 고려의 조음입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양국의 관청에서 제작된 물품들은 상호 공무역에 활용되었고, Ⅱ-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류층을 중심으로 당시 유행하던 문양이나 기물의 제작 및 소비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당시 원과의 물적교류는 공적 성격의 물품 외에도 원에 입조해있던 왕족 및 관리, 역관들에 의해 들어오거나, 원에서 고려 대청도 등으로 귀양을 오는 황족 또는 사신 그 외 기타 목적의 왕래가 잦았기에 다수 이들과 함께 들어오는 관련 물품도 상당수였다.

물론 이후 조선시대 조음입사는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일본 조음입사와도 연관을 갖는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에서 원을 거쳐 온 조음입사가 조선시대 성행한 조음면 및 기법형태와 가깝다. 따라서 조선시대 조음입사의 근간은 고려 후기 원을 통해 고려에 유입된 원 및 서방의 조음입사가 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원형화당초문을 통해 본 경향의 공유

고려와 원의 입사공예는 기법은 물론 당대의 경향이 반영되는 시문 문양의 조형에서도 상호관계와 경향의 공유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문양 중 하나는 圓形花唐草文이다. 원형화당초문은 꽃과 함께 기물에 전면시문되어 장식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중심문양을 보조하는 보조문양으로써 다른 문양들과 조화를 이뤄 기물을 장식하기도 한다. 또 원형화당초문은 14세기 고려와 원의 입사공예품에서 등장하는 문양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해 14세기 고려와 원의 입사장식 경향과 조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문양소재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원형화당초문은 입사공예품은 물론 螺鈿, 餞金, 象嵌 등의 감입을 기반으로 한 목칠공



도 11 <화로>, 명 1425-1435년(선덕관지), 너비 20cm, 영국박물관

예와 도자공예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된 문양으로써 入絲와 함께 14세기 감입을 기반으로 한 공예 장식기법의 효과와 조형, 경향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원형화당초문을 중심으로 고려 후기 입사공예의 시문효과와 조형, 그리고 원과의 문양 및 의장 경향의 공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형화당초문은 당초문에서 시작된 것으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AD 1세기를 전후해 등장한다. 꽃을 중심으로 줄기가 뻗어가는 화당초문에서 출발한 이 문양은 처음에는 기본 유형인 ∞ 형태로 지속되었다. 그리고 고려 12세기 이후부터 입사공예는 물론 칠기, 청자 등 다른 분야의 공예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원형화당초문은 꽃을 원형에 가깝게 감싸면서 뻗어가는 당초의 형태가 ∞ 형태와 함께 ∞ 형태가 극단적으로 휘어진 거의 ∞에 가깝기 때문에 당초의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만하게 꽃에서 휘어져 뻗어가는 기존의 화당초문과 구분된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宋代 銅鏡 및 칠기, 도자기 등을 시작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元代에 이르러 금속, 목칠, 도자, 석각, 죽각, 섬유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에서 적용되어 성행한다. 이는 동시대 고려 공예에서도 유사한 현상이다.

이러한 분야를 포괄한 공통 문양의 발달은 당시 성행한 경향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공통 문양소재의 유형은 이전 시대에도 있었던 현상으로 당대의 경향과 직결된 것이다. 이는 畫業(고려), 畫局(송, 원) 등 도안제작을 전문으로 한 기관 및 畫員의 존재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원형화당초문과 같이 양국에서 동시에 유행했던 문양의 경우 이러한 도안을 통해 마련된 표준화된 형태를 근간으로 경향이 공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13~14세기 고려 및 원의 입사공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당초문을 통해 타 공예분야와의 비교를 통해 입사 시문 문양의 조형 및 당대 경향의 공유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원형화당초문은 통일신라의 유물로 추정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螺鈿玳瑁漆菊唐草文拂子> 몸체에 전면시문되어 문양의 사용례 및 형태가 처음 확인된다(도 12). <나전대모칠국당초문불자>에 시문된 원형화당초문의 형태는 이후 고려시대 공예에서도 확인되는 유형으로, 원의 유형과도 유사하다. 이는 로마와 인도를 거쳐 중국을 통해 들어온 원형화당초문이 오



도 12 <나전대모칠국당초문불자>, 통일신라, 길이 42.7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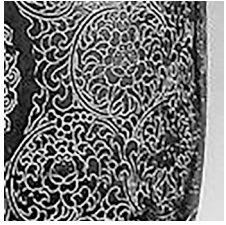
랜 기간 공예품 및 각종 조각 등에 적용되면서 고려시대에는 이미 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의 원형화당초문은 다양한 공예분야 및 불화에서 사용되었지만, 특히 금속의 입사, 목칠의 나전, 도자의 상감 등 감입법으로 장식된 공예품에서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는 기법의 특성상 꽃 혹은 다른 문양소재와 함께 사용되면서 색채대비 및 질감의 대비 효과를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소재 별로 흙이나 금속의 재료를 달리 사용하여 각각의 문양소재를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금속에서는 동제 기물에 금이나 은으로 문양을 표현했으며, 도자는 흙의 색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목칠에서는 자개로 표현한 화문 사이사이 당초를 얇게 자른 자개로 장식하거나 은과 동선을 꼬아 선을 만들어 박아 줄기를 표현하는 양상을 보이며, 현전하는 유물을 통해 볼 때 줄기가 원으로 완전하게 휘어져 들어가는 토착화된 원형화당초문의 형태를 일정부분 유지한다.

13~14세기 고려와 원 입사 공예품에 나타나는 원형화당초문은 꽃을 중심으로 당초가 휘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유형은 기본적으로 굽은 필치를 이용해 꽃과 잎을 굽게 그리고 단선으로 당초의 줄기를 시문하는 유형이다. 2유형은 꽃의 간략화 혹은 생략하고, 잎도 작게 표현한 유형이다. 두 유형은 기물 면 혹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유형은 기물 중심의 주문양으로도, 견부나 목, 구연부의 장식 등 기물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었다. 1유형은 ∞자를 기본으로 고려 및 원 이전시대부터 구축되어 온 전형적인 문양의 형태다. 굽은 필치로 그려낸 꽃이 문양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굽은 잎을 꽃의 동서남북에 배치한 후, 선을 따라 작은 이파리를 그렸다. 꽃과 굽은 잎의 위치와 방향은 대체로 동일한 편이며, 꽃을 감싸 나가는 당초의 줄기와 작은 잎은 시문되는 공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꽃은 다른 형태들에 비해 공간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꽃의 개화와 방향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2유형은 1유형에 비해 당초문 및 화문 등 구성요소들이 비교적 간략하게 표현돼 줄기와 꽃만을 표현하고 모두 생략하기도 한다. 따라서 1유형에 비해 당초의 줄기 형태가 거의 원형에 가깝고, 꽃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는 매우 간략화 된다. 하지만 꽃 역시 1유형과 비교해보면 간략화 되었다. 1유형에 비해 비교적 기물의 작은 공간에 시문되어 간략화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고려에서는 금속보다는 도자와 칠기에서 주로 확인되며 유물 빈도가 높지 않다. 중국 역시 원 이전 서화의 죽각 등에서 등장하기는 하지만 1유형에 비해 유물 빈도가 적다. 여타분야에 비해 도자공예가 그나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이는 각을 하거나 수를 놓아야 하는 다른 타 공예의 기법에 비해 흙을 빚고 문양을 표현하는 도자의 재료적 유연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표 5).

〈표 5〉 13~14세기 고려와 원의 도자, 입사공예에 적용된 원형화당초문의 유형

분야/유형	1유형(원)	1유형(고려)	2유형(원)	2유형(고려)
도자				
	〈모란당초문호〉, 원 경덕진	〈당초문매병〉 고려 12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용문편병〉, 원 경덕진	〈국당초문합〉, 고려 12-13세기, 국립중앙박물관
금속(입사)				
	〈투구〉, 1350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청동은입사향완〉, 1218년, 리움	〈鐵糝粃盒〉, 13-15세기, 중국 서장역사박물관	〈지정12년명 신계사향완〉, 1352년,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IV. 맺음말

고려의 입사공예는 이전부터 축적한 기술 및 문화를 바탕으로 대외교류를 통한 기술과 의장이 함께 적용되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이는 고려 후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원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기법의 상호교류는 고려에 쯤음입사가 도입되고 중국에 고려식 끼움입사가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상호 기법의 교류는 양국의 기술 및 기법의 확장을 동반했다.

지금까지 고려 및 조선의 입사공예는 관점에 따라 국내 혹은 조선 후기 쯤음입사와 형태가 유사한 일본 포목상감과의 연관성에 집중되었다. 또 교류와 관련해서는 송대까지의 입사기법은 전형적인 중국식 끼움입사로 영향관계가 없진 않았겠지만 한국의 입사기법 및 조형과 차이가 분명했다.

13~14세기 원과 고려는 동과 철로 제작된 기물이 함께 성행하면서 기존 금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동, 철제 공예품도 기법 및 조형의 상호 관계를 이어갔다. 주목할 점은

어느 한쪽의 모방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기존의 조형 및 기법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입사 기법의 확장 및 확산을 이뤘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공예문화 교류 및 확산의 상호성과 상대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교류를 통한 입사기법의 상호 확장 양상을 사회문화, 외교, 제도적 측면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하지만 적은 양의 유물과 문헌자료로 인해 정황 및 실마리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은 앞으로 고려 및 조선시대 입사 문화의 전승과 교류를 통한 기술적 근간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술문화의 전개 과정의 실체에 대해 부족하지만 약간의 단서는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와 조선의 입사공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한 유기적인 관점의 연구를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 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입사기법(入絲技法, Ipsa Technique), 입사장(入絲匠, Ipsa Craftsmen), 상감(象嵌, inlay), 금속상감(金屬象嵌, Metal inlay), 화국(畫局, Artistic Profession)

■ 투고일 2017년 12월 1일 | 심사개시일 2017년 12월 28일 |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2일 ■

참고문헌

1. 사료

『格古要論』
『經國大典』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京夢華錄』
『宣和奉使高麗圖經』
『宋史』
『新唐書』
『新增東國輿地勝覽』
『元史』
『朝鮮經國典』

2. 한국어문헌

김리나, 「능화문의 동서교류」, 『미술사학연구』242, 243, 2004.
김선정, 「조선시대 은입사기법의 현대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전문사 학위논문, 2013.
김세린, 「고려시대 금속상감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_____, 「고려시대 금제와 공장제를 통해 본 금속상감기법의 양상」, 『미술사논단』36, 2013.
_____, 「13-14세기 元代 工匠制를 통해 본 창금칠기의 전개와 성격」, 『미술사학연구』286, 2015.
_____, 「조선시대 입사장의 역할과 작업범주의 재해석」, 『무형유산』3, 2017.
김윤정, 「고려후기 상감청자에 보이는 원대 자기의 영향」, 『미술사학연구』249, 2006.
김은애, 「고려시대 타출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르네크루쎄 저, 김호동 역,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998.
박수지, 「쫄음입사의 기원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송영은, 「원대 경덕진 난백유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수에옹니엔 외 저, 안영길 역, 『중국미술사』3, 다른생각, 2011.
이선진, 「조선후기 철제입사공예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임지윤, 「고려시대 어자문공예품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장남원, 「쿠빌라이시대 고려, 원 도자수용의 변화」, 『미술사와 시각문화』8, 2009.

조원, 「元 法制의 특징과 동아시아에서의 영향: 고려의 元 法制 수용 논의를 중심으로」, 『13-14세기 몽골과 동아시아 교류사: 이화여대 사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이화사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조원희, 「碑刻자료를 통해 본 元代 무슬림의 지위에 대한 일고찰」, 『13-14세기 몽골과 동아시아 교류사: 이화여대 사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이화사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7.

최응천,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장인」, 『미술사학연구』 241, 2004.

국문초록

麗蒙戰爭이 마무리 되고 高麗와 元은 화친을 맺었다. 오랜 전쟁에 따라 피폐해진 고려 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협상이기에 화친 이후 고려는 피지배국과 다름 없는 위치에서 원과의 조약과 각종 명분을 근거로 인적, 물적 수탈을 지속적으로 당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고려는 국가의 존립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공예문화를 비롯한 고려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고 전승할 수 있었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원과 고려의 인적, 물적 교류는 확장 및 다각화되었고, 원과 고려의 상호 문물 유입도 본격화되었다. 이는 본 고의 연구주제인 입사공예에서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주요 세부기법인 끼움입사와 쫓음입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선 끼움입사는 원대부터 중국의 입사 유물에서 중국에서 전승된 끼움입사와 함께 고려식 끼움입사의 중국 유입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현재 고려 중기까지의 유물에서는 보이지 않던 쫓음입사가 14세기 유물에서 일부 확인된다. 쫓음입사를 먼저 사용했던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교류 내용 등을 기록한 여러 문헌자료들은 원대 중국에 쫓음입사가 서아시아 및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이 유입되어 정착한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당시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려 역시 원과의 교류를 통해 쫓음입사가 유입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은 정황들은 입사공예가 다방면에 걸친 고려와 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작용이 이뤄졌음을 알려준다.

13-14세기 원과 고려는 동과 철로 제작된 기물이 함께 성행하면서 기존 금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동, 철제 공예품도 기법 및 조형의 상호 관계를 이어갔다. 주목할 점은 어느 한쪽의 모방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기존의 조형 및 기법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입사기법의 확장 및 확산을 이뤘다는 점이다. 이러한 면은 공예문화 교류 및 확산의 상호성과 상대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원 간섭 기이자 고려 후기인 13세기 후반~14세기 고려 입사공예의 전개와 원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 기법의 상호 연관성을 제작과 직결된 금속공예의 제작체제, 원료 그리고 교류사에 주목해 분석했다.

The Development of Ipsa Techniques in the Later Goryeo Period and its Relation with Ipsa Techniques of the Yuan Dynasty

Kim, Se rine^{*}

At the end of the Mongol Invasions of Goryeo, the Goryeo and the Yuan entered into a peace treaty. As the treaty was made favorable to the Yuan, the Goryeo came to be in the status similar to a colony of the Yuan, and continuously exploited by the Yuan for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ased on the treaty or for other excuses. Nevertheless, the Goryeo preserved its national existence and culture, thereby transmitting its traditional crafts.

The exchanges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cluding craftwork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increasingly extensive and multifarious during the period. This is well illustrated in the primary ipsa techniques that have been transmitted till today: the inserting ipsa and the cross-hatching ipsa techniques. A variant of the inserting ipsa technique unique to the Goryeo was applied to craftworks of the Yuan Dynasty along with the Chinese traditional inserting ipsa technique. Moreover, the cross-hatching ipsa technique, which had been introduced to the Yuan from West Asia and Europe, began to be used in the Goryeo from the fourteenth century. In other words, the Goryeo adopted the cross-hatching ipsa technique through the Yuan in the period. These cultural phenomena demonstrate that there were active exchanges of ipsa techniques between the Goryeo

* Ph.D.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and the Yuan.

During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 craftworks made of bronze and iron became popular both in the Yuan and in the Goryeo. Therefore, there came to be increasing interchanges of techniques and designs for making objects of bronze and ir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hat is notable in this communication is that both of the countries maintained their traditional techniques and designs while learning from each other to expand applications of ipsa techniques to bronze and iron objects. This exemplifies reciprocity and cultural relativism in exchanges of craft skills and design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these observations, this article investigated how raw materials for craftworks made with ipsa techniques were secured in Goryeo; what w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 systems of producing metal works; how the ipsa techniques of the two countries interacted, to illuminate the development of ipsa techniques in Goryeo during the thirteenth and fourteenth centuries.